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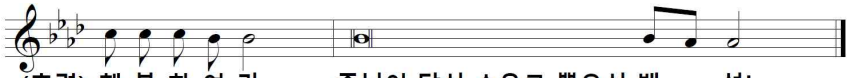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 독서] ····· 지혜 18,6-9

[화답송] ····· 시편 33(32),1과 12,18-19.20과 22(◎ 12ㄴ)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제2 독서] ····· 히브 11,1-2.8-19 (또는 11,1-2.8-12)

[복음 환호송] ····· 마태 24,42.44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2, 32-48 (또는 12,35-40)

[성가안내]

- 입당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 성체성가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 파견성가 [31] 이 크신 모든 은혜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이 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허 미자 실비아
원 근자 세실리아	방 상욱 베드로
손 성자 마리아	김 기덕 스테파노
하 재덕 요한	하 태일 안드레아

생미사	봉헌
맨하탄 한인 성당 교우들을 위하여	익명
맛세오 형제 자매들 위하여	익명
조 후연 야고버 신부	익명
김 기수 프란치스코 신부	익명
김 가롤로 신부, 박 티모테아 수녀	청년 전례부
2022년 모든 청년 전례 부원	청년 전례부
이 영애 레지나, 이 정현 헬레나 (건강위해)	양 미숙 마리아
임 성빈 토마스 아퀴나스 (생일 축하)	하늘처럼 성가대
이 브라이언, 박 수진 (결혼 축하)	이 경자 율리안나
송 명근 안드레아, 고 은경 모니카 (결혼축하)	꾸리아
강 호영 안드레아, 김 순자 엘리사벳	김 성은 로사
양 미숙 마리아	이 경자 율리안나
윤 복홍 요한	이 규완 안토니오
하 태일 안드레아 가정 위하여	하 태일 안드레아
이 정주 소화 데레사 (건강 위하여)	조 데레사
임 선혜 아녜스	김 승범 프란치스코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8월7일	김유화 데레사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정유진 콘솔시아	정유진 콘솔리아	안선정 마리안나	최예준 사도요한	최미루 로사
8월14일	이영노 율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민덕미 안젤라	한서희 데레사	최예준 사도요한

● 축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

8.1 알폰소 8.3 리디아(신약인물) 8.4 요한 마리아 비안네
8.8 도미니코 8.10 라우렌시오 8.11 클라라, 수산나
8.14 막시밀리아노 콜베 8.15 마리아, 아숨타 8.18 헬레나
8.20 베르나르도 8.21 비오교황 8.23 로사 8.24 바르톨로메오
8.25 루도비코 8.27 모니카 8.28 아우구스티노 8.29 사비나

● 신부님과 함께하는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 선착순 모집합니다.
- 일 시 : 2022. 9. 13 (화) ~ 9. 16 (금)
- 순례비용 : $1,450
- 순례신청 : 여권 사본과 예약금 $1,000
- 문 의 : 박 알버트 (646-201-0175)

● 한가위(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받습니다.

- 일 시: 9월 11일(일) 오전 11시
- 장 소: 뉴튼 성 베네딕도 수도원

● '하늘처럼' 성가대 단원 모집합니다.

'노래로 하는 하느님 찬양은 두배의 기도'라는
어거스틴성인의 말씀대로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문의 : 노 데레사 917-692-6447

● '하늘처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 자격 : 피아노 전공하신 분
- 문의 : 이 카타리나 646-696-4680

● 제6차 미 동북부 청년 '선택 주말'

- 일 시 : 9월 3일(금) ~ 5일(일)
- 문 의 : choicenj@gmail.com
- 신청기간 : 7월 15일 ~ 7월 31일 (선착순 30명)
- 장 소 : 뉴튼 수도원

● 레지오 마리애 교육

- 일 시 : 9월 23일(금) 오후 4시 ~ 9월 25일 (일) 오후 5시
- 신청마감 : 8월 28일(일)
- 참가비 : $300 (선착순 30명)
- 장 소 : 뉴튼 베네딕도 수도원
- 신 청 : 신청서 작성 후 본당 사제의 서명,
  각 본당 꾸리아 단장님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D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구세주의 모후 Pr.	매주일 8:00 am ~	교육관 1B
우리 즐거움의 원천 Pr.	매주일 10:30 am ~	Korean Conf.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 (루시아)
이정주 (소화데레사)
정창동 (폴리나)
진정은 (마리아)
고종호 (마태오)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이경희 (미카엘라)
김옥지 (아가다)
김동희 (헬레나)
지군자 (스테파니)
이진자 (세실리아)
이병국 (요한)
박명순 (모니카)

[2022년 8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제와 사회 위기 가운데에도 사업을 이어 나가며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는 길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오늘의 묵상

- 루카 12, 32-48 (또는 12,35-40) -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 복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깨어 있어라',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종말론적 전망 안에서 하늘 나라를 차지할 준비된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Eschatology 의 어원이 되는 희랍어 'eschaton'은 '마지막 것, 끝나는 시간, 세상 끝의 사건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 때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삶을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처럼 더 많은 권한을 바든 사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제1독서 지혜서는 '맏아들의 죽음과 광야에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적 전망 안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을 기억시켰습니다. 단순히 세상 끝 날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원수와 적을 파멸시키시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가져다주신 영광의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구원된 그들은 희생제물을 바쳤고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했습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 말 합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을 종말론적 전망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하느님을 믿는 믿음으로 외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바쳤다고 기억했습니다. "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 해 주셨습니다."

예언적 종말론이나 묵시적 종말론은 단순히 세상 끝 날을 주제로 삼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성경 말씀이 가리키듯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안에서 하느님께서 승리하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하느님 나라를 향한 순례로 생각하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시작할 결심을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삶의 소중함'

13년 전 어느 가을날, 한 사람이 의식을 잃고 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졌습니다. 출근하여 그를 발견한 동료들을 놀라서 급히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얼마나 진행되었을지 모르는 머릿속 출혈은 그를 마비시키고 급히 뇌수술이 필요했으나 가족은 곁에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웠던 그는 가족이 온 후 늦게 수술을 받고 보름 뒤 깨어납니다. 허기짐을 느끼고 음식을 먹고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지만, 이미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가고 싶은 곳에도 홀로 가기 힘들고 하던 일도 그만 둬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 갈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 모두가 불가능같이 느껴지는 절망 속에 있게 됐습니다. 얼마간의 재활 기간을 거친 후 더 이상 회복은 힘들다고 생각한 그는 가장 편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그의 가족들도 그를 떠났기 때문이지요. 돈보다 먼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사람이다 하더이다. 그래도 그는 더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팡이에 의지하게 됐지만 움직일 수 있고, 그의 기억은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한쪽 팔로도 그가 하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 글을 씁니다. 한때 절망했지만 갈망하였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많은 것을 되찾았고 죽을 것 같다던 그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가 수술받는 동안 수술방 앞에는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고, 죽음의 문턱을 넘지 않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는 생각하며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맞닥뜨리게 될 죽음 앞에 겸손합니다. 평안한 죽음의 축복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재활을 위해 입원했던 재활병원 교목이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 형제님을 살리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하고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전히 온전한 죽음의 준비가 안 된 채로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고 의지로 잘 준비하면서 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온전히 준비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분께 경외를 드리며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맡겨드릴 때 죽음의 자리에 선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사랑으로 품어주실 겁니다.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 서로 위하고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평안함이라고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두려웠고, 세상은 더욱 어지러워졌더라도 이겨내고 희망해야 할 빛은 소중한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자기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면서 주님의 행복 속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힘들더이다. 제 살을 덜어내는 아는 아픔 중에서 기뻐하시며 애덕의 공로를 잘 쌓으시기를 기도합니다.

- 신현욱 비오 신부 -